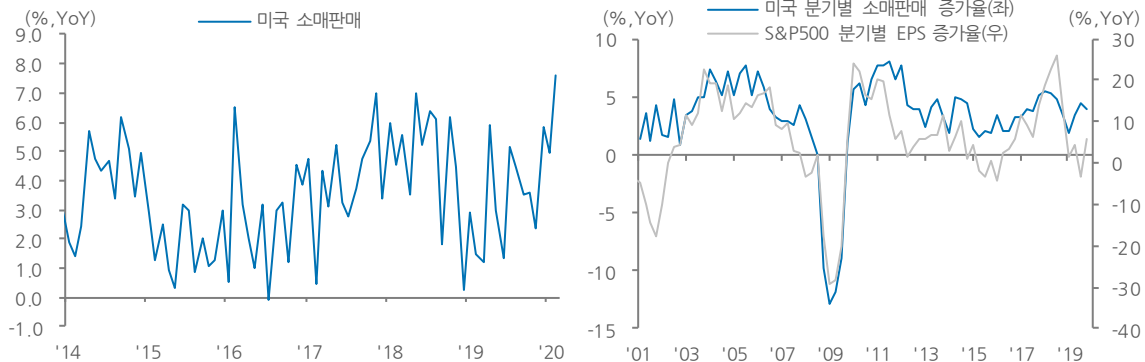


Fundamental Issue and Data the Market

한번 쓴 돈(Money)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

월별 미국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(좌), 미국 분기 소매판매 증가율 및 S&P500 EPS 증가율 추이(우)



자료: Refinitiv,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Fact 1. 밤 사이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. 다우산업지수는 11.4% 상승하며 1933년 이후 8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S&P500도 9.4% 상승하며 2,400P를 다시 탈환했습니다.

Fact 2. 지난 주에는 미국의 2월 소매판매지수가 발표됐습니다. 전월 대비 0.5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7.6%나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 이전 미국 경제는, 2019년 기저효과까지 반영하며 강한 확장세를 회복했습니다.

- 미국 경제는 내수소비가 중심입니다. GDP의 70%를 차지합니다. 당연히 미국 기업들도 수출보다는 내수로 돈을 벌니다. 미국 소매판매와 기업이익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.
- 미국의 1~2월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는 것은 이와 연결되는 1~2월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꽤 괜찮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.
- 미국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한 주(State) 전체가 셧다운 되는 등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이 3월 하순입니다.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은 피해가-전혀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-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(4월 12일) 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물론 그가 희망한다고 그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.
-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 별 확진자 수 증가 추이에는 패턴이 존재합니다. 첫 확진자 발생 후 1.5개월 정도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. 이를 고려해 보면 트럼프의 바람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.
- 4월 중순부터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 시작한다면,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4월 상반월에 해당하는 일부분만 훼손되는데 그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그렇다면 코로나에 의한 연간 실적 훼손은 총 12개월 중 1개월 정도(3월 하반월+4월 상반월)에 해당하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.
- 연간 전체 실적 중 1/12~1/10 손실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또 생각해봐야 할 점은 연준이 쓴 바주카포는 되돌릴 수 없고, 정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기로 한 것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.

Compliance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